

비판하지 말라

³⁵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 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³⁶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³⁷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³⁸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눅6:35-38)

그러나 만일 누가 자기 안에 있는 목적들을 알기 원한다면, 단순히 그로 하여금 그가 지각(*perceive*)하는 기쁨(*delight*)에 주목,

그 기쁨이 자아에 대한 칭송과 영광에서 오는 건지, 아니면 자아와는 별개인 쓰임새(*use*)에서 오는 건지를 관찰하게 하면 됩니다. 만일 후자라면 그는 진정한(*genuine*) 애정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그는 또한 자기 안의 다양한 상태들에 주목해야 하는데요, 이 상태들에 의해 지각 또한 굉장히 다양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자기 안의 것들은 헤아릴 수 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의 것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각 사람의 애정의 목적들을 아는 건 오직 주님 소관이기 때문입니다. (AC.3796:3)

※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 37절 말씀,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하신 것입니다. 즉, 남의 사정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 AC(*Arcana Coelestia*, 천국의 비밀) 위 3796번 글 3번 항에 대한 *Clowes* 영역 및 *Potts* 개정본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But if anyone desires to know the ends that are within him, let him merely pay attention to the delight he perceives in himself from the praise and glory of self, and to the delight he perceives from use separate from self; if he perceives this latter delight, he is in genuine affection. He must also pay attention to the various states in which he is, for the states themselves very much vary the perception. A man can explore these things in himself, but not in others; for the ends of each man's affection are known to the Lord alone.

이는 창세기 29장 10절,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 중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보고 나아가’(And it came to pass when Jacob saw Rachel, the daughter of Laban his mother's brother)에 관한 주석 일부입니다.

주님께서서는

³²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³³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눅6:32-33)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선대(善待)하는 사람에게만 잘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대가를 바라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순수한 선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하시고,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에게 선을 행할 때는 절대로 대가를 바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35절 말씀입니다.

³⁵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어찌면 우리는 모두 은혜를 모르는 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 모두 주님이 주신 것인데 우리는 마치 자기 걸로 누리고 있는 듯이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시지만 우리는 이웃이 조금만 잘못을 해도 냉정하게 돌아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옥에 가둔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당시 한 데나리온은 일꾼들의 하루치 품삷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7, 8만 원 된다 볼 수 있겠지요. 그리고 한 달란트는 그것의 6천 배인 6천 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큰 빚을 탕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옥에 가뒀습니다. 참으로 은혜를 모르는 자가 아닐 수 없습니

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없이 용서하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이웃에게 인색합니까? 이웃이 조금이라도 나에게 잘못하면 얼마나 무섭게 대합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들을 선대하라 하신 것입니다.

영적 의미로 원수는 악하고 거짓된 사람을 뜻합니다. 이를테면 선을 베풀면 악으로 갚는 사람이고요, 거짓말로 사람을 곤경에 빠뜨리는 사람이 원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악하고 거짓된 사람을 선대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악하게 대하면 그대로 당하고, 무언가 요구하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것이 선대하는 것일까요? 성문서는 악한 사람을 선대하는 것과 선한 사람을 선대하는 것은 그 방법이 다르다 가르칩니다. 즉 선한 사람에게는 직접적으로 선을 베풀어야 하지만, 악한 사람에게는 간접적으로 선을 베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에게는 선과 진리를 가르쳐야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벌이나 징계를 내리기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악한 자를 선대하는 방법

‘비판하지 말라’

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경우에도 악한 자들에게 악으로 되갚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복이기 때문입니다. 굳이 우리가 나서서 보복하지 않더라도 악한 사람은 스스로 악을 불러들여 징계를 받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사람을 대적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은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웃에게 선을 베풀 때에는 대가를 바라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웃에게 호의를 베풀 때 은연중에 대가를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인맥을 쌓고, 그것을 이용해서 필요할 때 서로 도움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지 주님과 이웃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¹²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

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¹³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¹⁴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눅14:12-14)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선을 행한다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대가를 바라거나 공로를 내세우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인들은 참으로 마음이 괴롭습니다. 나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한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대가를 바라거나 칭찬받기를 원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 부끄러워집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선을 행하려는 노력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노력할 때 주님께서 어느 순간 순수한 마음으로 이웃을 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라 하시고요, 그다음에 ‘그리하면 너희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아들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순수해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를 순수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순수한 상태가 되는 것을 말씀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된다'로 표현했습니다. 계시록 해설 695번 글 7번 항은 '지극히 높으신 아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은 자기 자신으로부터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다'(they do these things not from self but from the Lord).

※ 이는 요한계시록 11장 18절,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중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에게 상 주시며' 주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

님을 위해' 진리를 배우고, '주님을 위해' 진리에 따라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됩니다. 그리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선을 베풀게 됩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³⁷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님께서 이번에는 비판하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 하세요. 비판에는 진리에 의거한 비판이 있고, 그렇지 않은 비판이 있습니다. 진리에 의거한 비판은 정의를 세우기 위한 비판이므로 바람직한 비판입니다. 그러나 진리에 의거하지 않은 비판은 그저 험담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진리에 의거한 비판과 그렇지 않은 비판의 경계가 모호합니다. 왜 그럴까요? 비판하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그것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영적 의미로 볼 때, 비판은 단순히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비판하지 말라’

른 사람의 내면의 상태, 즉 영적인 상태를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애정이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애정이라고 임의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일단 그렇게 판단하면, 그다음부터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이기적이고 거짓된 것으로만 보입니다. 그것이 이웃을 정죄하는 일입니다. 계시록 해설 629번 글에는 정죄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있습니다. 즉 ‘악하고 거짓된 걸 악하다 생각하는 건 누구에게나 허용되지만, 선하고 진실한 경우는 아닙니다. 영계에서는 그들이 이웃이기 때문입니다.’(*to think evil of what is evil and false is permitted to everyone, but not of good and truth, for these in the spiritual sense are the neighbor.*)라고 되어 있습니다.

※ 이는 요한계시록 11장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중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

량하되’ 주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악을 악이라고 하고 거짓을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웃의 선의를 악이라 하고, 진실을 거짓으로 매도하는 것은 악한 비판이며, 이웃을 정죄하는 일입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선하면서도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미숙하거나 좋지 않게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명백한 악과 거짓은 비판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다른 사람의 내면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선의를 악하다 비판하는 버릇이 있는 사람은 회개해야 합니다.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그는 그 애정을 가지고 사후에 영계로 갑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께 의해서 그의 애정이 악하다 정죄를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하신 것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37절의 말씀이 악한 비판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라면, 38절 말씀은 선한 비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38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하십니다. 이 말씀은 선한 비판을 하는 사람의 사후의 상태를 그리고 있습니다. 선한 비판을 하는 사람은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하되 다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임의로 판단하지는 않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 주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안겨 주리라'의 영어 성경 번역은 '가슴에 안겨 주리라'입니다. 이 말씀은 선한 비판을 한 사람들이 사후에 영계에서 선과 진리를 받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누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누르는 것'은 주님께서 사람을 굴복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 앞에 굴복하지 않으면 선과 진리를 쥐도 잘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르는 것은 사람을 굴복시키고, 진리를 가르쳐주시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흔드는 것'은 그에게 남아 있는 거짓을 훌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선한 비판을 했던 사람들을 당신 앞에 굴복시키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거짓을 훌어 없애십니다. 그것은 부족한 선과 진리를 채워주시기 위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넘치도록 주신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악과 거짓이 제거되고 진리와 선으로 온전히 채워진 상태를 뜻합니다. 선한 사람들은 그런 상태로 천국에 갑니다. 그러면 가슴에까지 안겨 주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가슴은 사람의 생명, 즉 각 사람의 고유의 사랑을 뜻합니다. 따라서 가슴에까지 안겨주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선과 진리를 그의 생명, 즉 사랑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진리와 선은 기억 속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어야 하고,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선한 비판을 했던 사람들은 사후에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악한 비판을 했던 사람,

‘비판하지 말라’

즉 다른 사람의 진실을 거짓이라 하고, 선의를 악이라 했던 사람은 영계에서 조금 가지고 있던 선과 진리마저 빼앗겨 버립니다. 영계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을 마가복음 4장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²⁴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²⁵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막4:24-25)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신 말씀은 결국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악한 사람이 원하는 것을 무조건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웃 사랑은 무조건 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따라 선을 베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웃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사랑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도 넘치도록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낌없이, 대가 없이 선을 베푸라 하시니까 ‘그러다 보면 가진 것이 하나도 남아나지 않겠구나...’ 걱정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서 아낌없이 선을 베풀 때 주님께서 넘치도록 주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이웃 사랑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옳은 행동은 옳다 하고 그른 행동은 그르다 할 뿐, 그의 내면까지 마음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오로지 주님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마5:37)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하늘의 보상을 내려 주시고, 우리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주님의 그런 은혜가 서울 새 교회와 한결같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¹⁶그 첫째가 나아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므나로 열 므나를 남겼나이다 ¹⁷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눅19:16-17)

아멘

원본

2018-05-06(D1)

서울 새 교회 이순철 목사

설교

2023-01-26(D5)

한결같은교회 변일국 목사